경동 한약상가

전통약령시 지정

엄격한 품질관리 및 유통체계 동방약성과도 교류확대 할 터

국내 최대의 한약재 유통시장인 경동한약상가 전통약령시로 정식 지정됨으로서 국제시장으로서의 도약이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60년대 이후 자연발생적 유통의 메카로 성장한 경동한약상가를 「전통한약시장」으로 승인했다.

승인면적은 제기동 및 용두동 일대 9백42필지, 23만5천1백㎡로 점포수는 모두 8백99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번 전통한약시장 승인은 상가번영회, 생약협회, 동대문구 약사회 등이 주축이 된 경동한약가협의회가 전통한약시장 지정 건의안을 올림에 따라 세부작업이 진행된 끝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따라 경동한약상가는 앞으로 한약재 상설전시장을 비롯 경동한약도매시장을 설립, 엄격한 품질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을 시행하게 된다.

상가번영회는 또 한의학국제심포지엄등 대규모 학술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최근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최대 약령시인 동방약성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희귀한 약재교환 등 다양한 공동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전통약령시 지정으로 자율정비는 물론 주변환경 개선 유통체계 확립, 불량한약재 척결등으로 한약재 유통 명소로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용작물유통 개선방안」강의

이종용 회장은 6월17일, 지방농업행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농진청이 마련한 제1기 잠업특작반 교육에서 「특용작물의 유통개선 방안」에 관해 강의.

대정광 수입하면 안된다

생약협회 관계당국에 건의

최근 대정광 수입설이 나돌아 두충 재배농가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대정광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두충과 비슷하나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대한약전 외 한약(생약)규격집에도 없을 뿐 아니라 한약재로서 구체적인 효과와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품목.

만약 대정광이 수입될 경우 국산 두충으로 둔갑하여 유통될 우려가 있어 국내 두충재배 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따라 한국생약협회는 「국내 두충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대정광 수입하면 안된다」는 제목의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내 두충과 대정광의 구별법과 수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실제로 15~20년전 두충이 귀할 당시, 대정광을 식품으로 반입해 와 국산두충으로 속여 판매해 왔다는 것.

대정광이란 가죽나무 껍질을 말하며 두충과 그 형태가 비슷한데 두충껍질이 재색인데 반해 대정광은 붉은색을 띄며 껍질이 두충보다 두껍다. 껍질 사이에서 신이 나오는 것도 두충과 같아서 전문가가 아니면 육안으로 구분이 어렵다고 한다.

가죽나무잎은 황백, 옻나무와 비슷한데 향이 독특해서 초봄 잎이 한뼘정도 올라오기 시작할 때 채취해서 나물로 식용한다.

인사

「任」

▲윤성익(경기도 부천시 공판장장 95년5월30일부)

「免」

▲김미숙(협회본부 서무계) 95년6월30일부 ▲서준석(서울 마포구 사무소장겸 공판장장) 95년5월25일부 ▲이경선(전북 진안군 사무소장겸 공판장장) 95년6월14일부

내방

△이효승 농학박사(경기도 농촌진흥원 연천율무시험장장) △김금태 보건학박사 △최해식 농업공무원(전남 구례군) △신경철 농업공무원(경남 의령군) △송환준 농업공무원(경남 남해군) △염충열 농업공무원(강원 인제군) △박창순 농업공무원(충북 청주시) △고영욱 농업공무원(인천 옹진군) △조준성 농업공무원(전남 광주시) △신정교 농업공무원(경북 의성군) △신은식 농업공무원(경기 여주군) △김선원 농업공무원(전북 진안군) △이동복 농업공무원(충남 금산군)

사 설

명확한 유권해석을

96년 1월1일 한약재 규격화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 규정을 제정 발표했다. 그러나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한 관리규정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를 따로 분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칙 제3조(한약판매업자의 국산한약재 취급에 관한 경과조치)에 보면 「한약판매업자는 규격품 대상 한약중 농민이 자체 생산하여 가공·포장한 제품도 표준규격에 적합한 한약재의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 함으로서 농민의 단순가공판매관행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가공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범위안에 「생산자단체」는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가공 포장 판매할 수는 있지만 단체를 통해 공동으로 가공 포장 판매하면 안된다는 것인지, 생산자는 허용하면서 「생산자단체」를 명기하지 않은 점은 규격화 시행에 앞서 자칫 혼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말 그대로 직접 약초농사를 짓는 사람이 생산자라면, 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만든 공동체가 바로 생산자단체다. 말하자면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는 따로 분리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수입개방화에 대응 유망품종개발과 재배기술 보급, 국내 약용작물의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우리생약살리기운동 등 농민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단체를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정책수행에 앞서 진정으로 생산자보호측면을 중시한다면 그들 단체의 권익도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 내년 1월1일 규격화 시행에 앞서 관계당국은 보다 공정하고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어렵게 마련된 규정안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세계적인 약령시로

6월1일 서울 제기동 소재 경동한약상가가 전통약령시로 정식 지정됨으로서 세계화시대 국제시장으로의 변모가 기대된다. 경동상가는 60년대부터 강원, 충청, 경상도 등에서 생산되는 약초가 교통이 편리한 청량리역 주변에 자연스럽게 집결되면서 한약을 취급하는 업소들이 하나 둘씩 모여 지금의 대단위 한약재 상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관계당국의 정책적인 계획속에 형성된 곳이라기 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곳이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약재들은 일단 이곳에 집결 서울등 수도권 일대의 한의원·한약국을 비롯 전국 각지로 다시 팔려 나간다.

80년대의 경동한약가는 값싸고 질좋은 한약재의 주 공급원으로 최대의 전성기를 구가하기도 했다. 사실 요즘들어서는 한약업계의 계속된 불황으로 경동상가는 예전의 활기를 찾아볼 수 없다. 전통약령시 지정이 경기침체국면에 새바람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도 해봄직하다.

이름뿐인 약령시가 되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경동상가에 자리잡은 9백여업소에 달려있다. 국민보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양질의 한약재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보다 수준높은 서비스문화 정착에 힘쓸 때 경동한약상가는 명실상부 국내최고의 약령시로, 국제시장으로 우뚝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약령시로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

중국재배현장

도상화 교수(동덕여대 약학대), 안덕균 교수(경희대 한의대), 성낙술 연구관(농진청 작)으로 구성된 본 협회 생약연구위원들은 '95현장애로기술 연구차 지난 6월17일~25일 6박7일 일정으로 중국약초재배지를 다녀왔다.

생약자원조사 8~10일까지

생약학회는 오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강원도 오대산에서 생약자원조사 및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신청은 강원약대 김창민 교수. 전화(0361)556-6912, FAX(0361)555-7865

사 고

본 협회 산하 회원간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한 95년 하계 수련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 시 : 8월2~3일 (1박 2일)
장 소 : 충북 보은 속리산
참가대상 : 본부 사무국 임직원을 비롯 이사, 지부장, 사무소장, 공판장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사무국(전화 : 02-967-8133)으로 연락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